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WSJ: 미 소매 판매 상승... 소비자 금리 인상에 회복력
- ABCNews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주 연속 상승
- Bloomberg: 뉴욕주 제조 활동 반등
- WSJ: 분석가들, “파월 의장 7월 금리 인상 시사”

#### [무역]

- The Economist: 미국, 아시아와의 무역 입지 잃어가

#### [뉴욕시]

- Silive: 6월 15일부터 케네디/라과디아 공항 파킹비 인상

#### [서부 항만]

- CNBC: 잠정 합의로 서부 항만 파업 끝나

#### [개인 보험]

- WSJ: 건강 보험 갈등에 대체하는 방법은?

#### [중국 경제]

- WSJ: 중국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책 준비중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사무실 완전 복귀에 반대하는 직장인과 기업들
- CNN Business: CEO의 42% “AI, 5~10년 안에 인류 파괴할 수 있다”
- CNN Business: 구글 AI 사용하여 쇼핑 방식 바꾼다
- Bloomberg: MS의 AI 지배력, 실리콘 밸리 권력 구조 흔들다
- Bloomberg: Tesla, 재고 차량 구매 시 3개월 무료 충전 제공

#### [보고서]

- Goldman Sachs: 미 경제 리스크 줄고 있고 올해 GDP 1.8% 긍정적
- Goldman Sachs: 미중, 상호 탈동조 확대 가능한가?
- \*\*\* Goldman Sachs 각종 보고서들(원본)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 **WSJ: Retail Spending Rose in May as Consumers Remain Resilient to Rate Rises**

#### **미 소매 판매 상승... 소비자 금리 인상에 회복력**

-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지출 수요가 강하다.
- 5월 미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.3% 상승했다. 4월에는 0.4% 상승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.

- 판매가 늘어난 품목은 식료품, 가구, 전자 제품 등으로 가격이 싼 가솔린 지출은 줄었다. 소비지출은 미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큰 점유율이다.

WSJ 기사

### ABCNews: Number of Americans filing for jobless claims is elevated for second straight week

####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주 연속 상승

- 이에 따라 지난 1년여의 연준 금리 인상 조치들이 그동안 강했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.
- 6월 10일 끝나는 주의 신규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만2천개로 예상보다는 컸다. 그 전주보다 1천개 늘어났는데 지난 연속 2주간 수치는 지난 2021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건수다.
- 4주 평균 실업 건수는 9천건 늘어난 24만6천7백50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건수를 보였다.

ABC News 기사

### Bloomberg: New York State Factory Activity Rebounds While Price Gauge

#### 뉴욕주 제조 활동 반등

- 주문과 출하가 모두 반등하면서 뉴욕 주 제조 활동의 지표가 6월에 예기치 않게 확장되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.
-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의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오늘 목요일에 38.4 포인트 상승한 6.6을 기록했다. 0보다 높은 수치는 성장을 의미 한다.
-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주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가격 지수는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령하는 가격 지수는 2020년 4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.

WSJ 기사

### WSJ: Fed's Powell Suggested July Rate Rise Is Likely, Analysts Say

#### 분석가들, “파월 의장 7월 금리 인상 시사”

-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대신 연준이 7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.
- 파월 의장은 어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연준의 기본 입장은 7월 25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전해졌다.
- 수요일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18면중에 12명이 올해 최소 두 번더 이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3월의 4명보다 훨씬 늘어났다.

## WSJ 기사

## [무역]

### The Economist: America is losing ground in Asian trade 미국, 아시아와의 무역 입지 잃어가

- 한마디로 중국의 공급망 지역화 노력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. 중국의 조용히 승리하고 있는 미중국 경쟁상태라는 것이다.
-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인도-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, 중국 지원을 받는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가 각각있다.
- 중국 지원을 받는 RCEP은 이미 중국의 상업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. 올해 6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%와 5% 감소한 반면,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8% 증가했다.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이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.
- 그리고 RCEP의 보다 자유로운 원산지 규정 때문에 생산성 향상으로 회원국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, 오는 2035년까지RCEP 국가 간 무역이 노딜 시나리오에 비해 무려 12%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.

## The Economist 기사

## [뉴욕시]

### Silive: Airport parking prices in NYC area to increase June 15: How to lock in lower rates

#### 6월 15일부터 케네디/라과디아 공항 파킹비 인상

-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관리하는 뉴욕 주요 공항의 주차료가 인상된다.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이달 15일부터 존 F 케네디 공항, 라과디아 공항, 뉴왁리버티국제 공항의 단기 및 장기 주차비가 각 주차장과 예약 여부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. 예약없으면 주차를 못할수 있어 24시간 전 예약이 바람직하다는 것.
- 예컨데, 존 F 케네디공항은 하루 주차 기준으로 옐로·블루 주차장은 예약 42달러·비예약 70달러에서 각각 48달러와 80달러로 오르고 장기 주차(Long-term Parking)는 예약 20달러·비예약 29달러에서 각각 30달러와 35달러로 오른다.

## Silive 기사

## [서부 항만]

### CNBC: Tentative agreement ends worker slowdowns and stoppages that crippled West Coast ports

## 잠정 합의로 서부 항만 파업 끝나

- PMA와 ILWU 간의 잠정 합의가 이번주 수요일 밤에 발표 되었다. 항만 생산성을 저하 시킨 파업이 종결된 것이다.
- 잠정 합의는 6년 동안 진행되며, 29개 서부 해안 항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.
- 현재 수십억 불의 화물이 항구에 묶여 있으며, 혼잡과 지연으로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. 이는 전체 인력이 복귀하면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

CNBC 기사

## [개인 보험]

### WSJ: Your Health Insurance Is Giving You Trouble? Here's How to Fight Back

#### 건강 보험 갈등에 대체하는 방법은?

- 건강 비영리 단체 KFF에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. 보험회사들이 예상과는 달리 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, 주요 의사와 병원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환자의 치료와 약 사용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우선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 플랜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.
- 치료비 지불 거부나 의료 서비스가 지연 거부되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. 권리 옹호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.
- 왜 치료가 보장되지 않은 이유와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. 또한 보험사로부터 받은 "보험 혜택 설명" 등의 문서에 이의 제기 선택 조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항상 통화 시간과 날짜, 회사 담당자의 이름 등 보험사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.
- 불만을 어필할 수 있는 기관은 Patient Advocate Foundation, the Center for Medicare Advocacy, the Medicare Rights Center 등이다.

WSJ 기사

## [중국 경제]

### WSJ: China Plans New Spending Drive, Other Stimulus to Revive Flagging Economy

#### 중국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책 준비중

-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중국의 경제를 점프스타트 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계획중이다.
- 이는 중국이 지난해 8월 이래 처음으로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일련의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.
- 중국은 경제 둔화와 미중 냉각 관계, 중국 첨단 칩에 대한 접근 제한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.
-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들의 예상 효과에 부정적이다. 예컨대 이번 조치가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더 힘든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차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낡은 방식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**Bloomberg: Workers Resisting the Office Grind Are Suddenly Lonely at Home**

##### 사무실 완전 복귀에 반대하는 직장인과 기업들

- 직원들은 유연성을 원하고, 리더는 팀의 협업을 촉진하고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길 원한다. 이 교착 상태는 재택 근무와 사무실 복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.
- “하이브리드 근무는 처음에 잘 이뤄졌다. 하지만 현재는 생산성 수준이 떨어졌다. 대면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”라고 S4 Capital Plc의 회장인 Martin Sorrell이 말했다.
- 블룸버그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 2명 중 1명이 사무실로 복귀보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. 전 세계 응답자의 20%가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.
- 풀타임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, 대부분의 기업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선호한다. 대면을 지지하는 기업들도 이제 팀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CNN Business: Exclusive: 42% of CEOs say AI could destroy humanity in five to ten years**

##### CEO의 42% “AI, 5~10년 안에 인류 파괴할 수 있다”

- 이번 주 예일대 CEO 서밋 설문조사에 참여한 42%는 AI가 5~10년 후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.
- 이 설문 조사에는 Walmart CEO Doug McMillon, Coca-Cola CEO James Quincy, Xerox 및 Zoom과 같은 IT 기업의 리더와 미디어, 제조 분야의

CEO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CEO 119명이 응답했다.

- 34%는 AI가 10년 안에, 8%는 5년 안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답했다. 반면에 58%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.
- 예일대는 별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 중 42%가 AI의 잠재적 재앙이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. 반면에 58%는 과장되지 않았다고 답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### **CNN Business: Google is using AI to change how you shop** 구글 AI 사용하여 쇼핑 방식 바꾼다

- 구글은 이번주 수요일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체형에 맞는 옷을 보여주는 새로운 '가상 시착 기능'(virtual try-on feature)을 발표했다.
- 이를 통해 쇼핑객은 취한 포즈에 따라 옷이 어떻게 접히고, 달라붙고, 늘어나고, 주름과 그림자를 형성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- 또한 구글은 AI 기반의 시각적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색상, 패턴 혹은 유사한 스타일의 의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출시할 예정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### **Bloomberg: Microsoft's Sudden AI Dominance Is Scrambling Silicon Valley's Power Structure** MS의 AI 지배력, 실리콘 밸리 권력 구조 흔들다

- ChatGPT의 소유주는 OpenAI가 아니라 MS이다. MS는 OpenAI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큰 재정적 후원자이다. ChatGPT를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할 책임의 상당 부분이 MS에 있는 것이다.
- 불과 1년 전만 해도 MS는 AI 관련으로 평가 받지 못했다. 하지만 MS는 OpenAI의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했다.
- 2027년까지 MS의 수익은 99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 MS는 2019년부터 OpenAI에 130억 불 투자하고, ChatGPT 공개 이후 주가가 30% 상승해 AI 기술 대기업이 되었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Bloomberg: Tesla Offers Months of Free Fast-Charging to Move Inventory Cars** Tesla, 재고 차량 구매 시 3개월 무료 충전 제공

- 테슬라는 미국에서 3개월 무료 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. 분기 말까지 Model 3 세단 재고를 처리하기 위함이다.

-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혜택은 6월 30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적용된다. 이 회사는 6월 초 미국에서 모든 버전의 세단에게 7천 5백 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.
- 이외에도 테슬라는 Model 3보다 더 비싼 Model S와 Model X를 구매한 고객에게 3년 무료 고속 충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보고서]

#### **GoldmanSachs: Lower Risks, Higher Rates** **미 경제 리스크 줄고 있고 올해 GDP 1.8% 긍정적**

- 요지: 미 향후 12개월 침체 가능성 25%로 감소. 은행 스트레스 개선 및 부채한도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.
-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25%로 낮아져 SVB 사태 직후에 35%로 상향 조정했던 것이 취소됐다. 침체 가능성이 약화된 것은 두가지 때문.
- 첫째, 파괴적인 부채 한도 싸움의 역풍 리스크가 사라졌다.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초당적 예산 합의 때문에 향후 2년간 전반적인 재정 충격을 대체로 중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은 규모의 지출 삭감만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둘째,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은행 주가가 안정되고 예금 유출이 둔화되고 대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. 대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긴축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 스트레스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에서 0.4%p 정도만 줄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기본 추정치가 맞은 가능성이 높다.
- 한편, 실질 가처분 소득의 회복과 주택 시장의 안정화로 인해 경제는 상당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.8%(연평균)로 민간 부문 컨센서스와 연준의 전망치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Goldman Sachs 보고서

#### **GoldmanSachs: Top of Mind: US-China: more decoupling ahead?** **미중, 상호 탈동조 확대 가능한가?**

- 문제는 양국의 긴장고조로 인해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게 아닌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.
- Bain의Jonathan Zhu와 에Rhodium의 Daniel Rosen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. 물론 Rosen은 양국 경제의 탈 동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-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전문가들의 각각의 입장이 자세히 원본에 설명되어 있다.

Goldman Sachs 보고서

**\*\*\* Goldman Sachs 각종 보고서들(원본)**

Goldman Sachs 보고서들

**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

**"금리보다 강한 AI"...미국 나스닥100, FOMC 여파에도 상승**

**S&P500·나스닥100 5거래일 연속 올라...엔비디아·인텔 4%대↑**

인공지능(AI) 수혜주 다수가 포진한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100 지수가 14일(현지시간) 미 기준금리 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"AI가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보다 강하다는 게 입증됐다"는 평가까지 나온다.

블룸버그통신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상장종목 가운데 100대 비금융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지수가 이날 전장 대비 104.84포인트(0.7%) 상승한 15,005.69로 장을 마감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.

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점도표(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)를 통해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